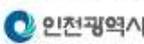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26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시민정책 담당관실	담당자	• 시민정책팀장 주소정 ☎440-2186 • 담당자 이영란 ☎440-2187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시민숙의기반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 가동
 - 2021년 제1회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개최 -
 -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6일 ‘2021년도 제1회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공갈등 예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상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후,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조례개정을 통해 공론화·갈등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특히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는 기존의 광범위한 공론화 대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조정 등 다양한 갈등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론화와 갈등관리를 통합하는 구조로 확대 개편됐다.

위원회는 갈등관리전문가 5명, 시민단체 3명, 변호사 1명, 시의원 3명 및 당연직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시가 정책을 수립, 시행 시 발생하는 다양하고 장기화된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민선7기의 공약인 숙의중심의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인천형 공론화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신 위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며 “새롭게 추진되는 시민숙의기반 통합 갈등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 2021년도 상반기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심의 및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등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공공갈등사안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갈등진단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 맞춤형 갈등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갈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500명의 숙의 시민단을 신설하고, 각 의제별 소규모 숙의시민단을 구성·운영해 시민 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적해 있는 공공갈등들을 예방하고 해결해서 시민들의 시정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00) 후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only.webhard.co.kr)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